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동향 및 대응방안

2002. 12.

K O T R A

# 목 차

I. 最近 世界 FTA締結 主要 特徵/1

II. 世界 FTA協商動向 및 허브 指向國 戰略/8

III. 世界 주요국의 FTA推進戰略 /18

IV. 韓國輸出에 미치는 影響/31

V. 韓國의 對應戰略/39

□ 부록: 세계 주요국별 · 지역별 최근 FTA협상 동향/51

# I. 最近 世界 FTA締結 主要 特徵

## 1. FTA 체결 경쟁 가속화 및 동일 지역내 가입국 확대

- WTO에 통보되어 발효 중인 세계 자유무역협정(FTA)은 2002년 6월말 현재 143건임
  - 50년대부터 80년대 약 30년간 총 26건 발효
  - 90년대에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됨
    - 90년대 이후 발효건수는 전체 143건의 87%에 상당한 117건임

FTA 지역별 분포

	구주·러시아·CIS·중동·아프리카			미주	아시아·대양주	지역 횡단	합계
	서구·중동·지중해	중동구·러시아·CIS	사하라이남·아프리카				
55-59년	1						1
60-69년	1			1		3	5
70-79년	10			1	2		13
80-89년	1			2	2	2	7
90-94년	18	7	1	2	3		31
95-99년	30	25	1	2	1	1	60
2000년이후	11	6	2	1	2	4	26
<b>합계</b>	<b>72</b>	<b>38</b>	<b>4</b>	<b>9</b>	<b>10</b>	<b>10</b>	<b>143</b>

자료원: WTO

- 주) 1. 2002.6.30일 현재, 서구·중동·지중해와 중동구·러시아·CIS 국가의 FTA(EU=폴란드, 이스라엘=체코등) 및 서구·중동·지중해와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의 FTA(EU=남아프리카)는 서구·중동·지중해 지역으로 계산함
2. WTO(GATT)에 통보된 RTA(Regional Trade Agreement)로 2002.6말 현재 발효중인 172건중, EC신규 가맹에 따른 추가통보나 GATT나 GATS의 중복통보 등, 동일 FTA로 간주되는 29건은 제외한 것임

- 가맹국 추가나 역내 단결 등 동일 지역내 FTA확대가 두드러짐
  - EU: '58년 로마조약발효 당시 6개국→현재 15개국→25개국(2004년)
  - 미주지역: 34개국이 2005.1.1까지 미주자유무역지역(FTAA)창설 목표로 협상중

- 동아시아: AFTA가맹국 '92년 발족당시 6개국→ 10개국
- ※ 최근 일본-아세안, 중국-아세안, 아세안+3(일본, 중국, 한국) FTA 체결 협상중이거나 검토 중

## 2. 지역 횡단적 체결증가

- 2000년 이후 새로운 경향으로 EU, NAFTA 등에서 발견됨
- 종래 FTA는 인접국·지역간, 동일지역내 국·지역간 체결이 주
- 99년까지 발효된 지역 횡단적 FTA는 미국=이스라엘, 캐나다=이스라엘 및 수권조항(enabling clause) 4건 총 6건에 불과
- 2000년 이후 멕시코=이스라엘, EU-멕시코, EU-칠레, EFTA-멕시코, EFTA-싱가포르, 미국-요르단, 한국-칠레 7건이 체결됐고 미국-싱가포르 협상 완료단계, EU-MERCOSUR간은 협상단계임
- 지역횡단적 체결증가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반영
- 예) EU=멕시코 FTA체결은 EU기업이 멕시코를 경유한 NAFTA내 북미시장 진출전략이 배경임

## 3. FTA 허브지향

- ◆ 가능한 한 많은 FTA를 체결하여 유리한 시장접근을 확보하고,
- ◆ 체결상대국의 외국자본을 도입하며
- ◆ 국내경제개혁 및 구조조정 가속화 도모

-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는 FTA를 중요 통상정책으로 설정하고 지역내 FTA의 중추(Hub)를 지향하고 있음

- 멕시코는 미국, EU, 일본과의 균형자적 관계정립을 통한 실익 추구, 역외국에는 16%대 고관세로 FTA체결국의 투자유도
-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의 하나인 강점을 이용, FTA 연계구축을 통한 안보기반강화가 주목적
  - ※ 중국은 '8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개도국 최대 및 세계 2위 FDI 유치국으로 부상, 세계의 제조공장으로 변모하여 주변국은 외국인 투자 유출 및 산업공동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음
- 칠레는 남미국중 가장 선진된 경제로 FTA를 시장개방, 구조구조 조정 촉진,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로 국가신인도제고

### 세계전체의 직접투자 유입액중 NAFTA제국의 비중추이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19.1	16.0	24.3	28.6	25.2	27.4	27.5	32.1	36.0	25.6	24.0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각년호

#### 4. 세계무역에 접하는 비중확대로 FTA위상 제고

- FTA가 세계무역에 접하는 비중은 약 70%에 수준에 도달
  - 2000년기준으로 NAFTA, EU, EFTA, AFTA(ASEAN Free Trade Area), MERCOSUR(남미공동시장)수출총액은 세계 전체 수출의 68%를 점함
  - 세계 전체 수출은 2000년에 12% 신장하였지만 이 기간 중에 NAFTA, AFTA, MERCOSUR의 역외국 수출증가율은 각각 14%, 19%, 14%로 세계 전체 수출신장률을 상회함
  - FTA 체결국간 역내 수출증가율은 NAFTA 18%, AFTA 28%, MERCOSUR 17%로 역외 수출신장률을 상회함

### 역내 및 지역간 수출의 상호의존도

구 분	1978	1989	1993	1996	1998	2000
<b>○ 지역간 무역</b>						
동아시아 북미	0.27	0.31	0.26	0.23	0.26	0.26
서유럽	0.15	0.17	0.15	0.14	0.16	0.15
북미 동아시아	0.15	0.22	0.21	0.22	0.17	0.17
서유럽	0.21	0.20	0.17	0.15	0.16	0.15
서유럽(EU) 동아시아	0.03	0.05	0.07	0.08	0.06	0.06
북미	0.07	0.09	0.09	0.08	0.10	0.11
<b>○ 지역내 무역</b>						
동아시아	0.31	0.36	0.43	0.49	0.43	0.48
북미	0.36	0.41	0.46	0.48	0.51	0.56
서유럽(EU)	0.57	0.62	0.60	0.59	0.55	0.62

주: 동아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주요국 10개국, 북미는 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서유럽은 EU 15개 회원국

자료원: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IMF

- 경제통합체의 역내무역비중이 계속 증가
  - NAFTA 역내수출비중은 1989년 41%에서 2000년 56.0%로 상승
  - EU역내수출비중은 역내통합이 일단락된 90년대 초에 60%를 상회
  - 동아시아 주요국 10개국간 역내수출비중도 FTA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1989년 36%에서 2000년 48%로 증가함
  - 반면, 개도국간의 무역확대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음

### 세계 주요 지역협정 인구 및 시장규모

지역협정	회원국	형태	규모	특징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5개국	국가연합	인구:3.8억 GDP:7.9조불	-58년 EEC설립 -93년 EU설립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자유무역협정	인구:4.1억 GDP:11.2조불	-89년 미-캐 FTA -94년 멕시코참가 -선진국-개도국 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10개국	자유무역협정	인구:5.2억 GDP:0.9조불	-92년 기존 6개국 추진 -2002년 선발 6개국시작
남미공동시장(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4개국	공동시장	인구:2.2억 GDP:0.9조불	-95년 설립 -00년말 역내공동 거시정책설정

## 세계무역(상품)에 주요한 FTA 위상

(단위:10억불, %)

		금액	대세계 무역비중	전년비 신장율		역내·역외 수출입 비중	
		2000년	2000년	90-2000 연평균	2000년	90년	2000년
세 계	수출	6,186	100.0	6	12	-	-
	수입	6,490	100.0	6	13	-	-
NAFTA(3)	수출	1,224	<u>19.8</u>	8	14	100.0	100.0
	역내수출	686	11.1	11	18	42.6	56.0
	역외수출	539	8.7	5	9	57.4	44.0
	수입	1,672	25.8	10	18	100.0	100.0
	역내수입	674	10.4	11	18	34.4	40.3
	역외수입	998	15.4	8	18	65.6	59.7
EU(15)	수출	2,251	<u>36.4</u>	4	2	100.0	100.0
	역내수출	1,392	22.5	4	0	64.9	61.8
	역외수출	859	13.9	5	7	35.1	38.2
	수입	2,362	36.4	4	5	100.0	100.0
	역내수입	1,396	21.5	4	0	63.0	59.1
	역외수입	966	14.9	5	13	37.0	40.9
AFTA(10)	수출	427	<u>6.9</u>	11	19	100.0	100.0
	역내수출	101	1.6	13	28	20.1	23.7
	역외수출	326	5.3	11	17	79.9	76.3
	수입	367	5.7	8	23	100.0	100.0
	역내수입	90	1.4	13	31	16.2	24.5
	역외수입	277	4.3	7	20	83.8	75.5
MERCOSUR (4)	수출	85	<u>1.4</u>	6	14	100.0	100.0
	역내수출	18	0.3	16	17	8.9	20.9
	역외수출	67	1.1	5	13	91.1	79.1
	수입	89	1.4	12	8	100.0	100.0
	역내수입	18	0.3	16	14	14.5	20.1
	역외수입	71	1.1	11	7	85.5	79.9
(참고)한국	수출	172	2.7	10	19		
	수입	160	2.4	9	34		
일본	수출	479	7.7	5	14		
	수입	380	5.9	5	22		
중국	수출	249	3.9	15	28		
	수입	225	3.4	15	36		

주) ( )의 숫자는 FTA가맹국수, 이태릭체 밑줄 숫자의 합계는 64.5%

자료원: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1(WTO)

## 5. FTA 미체결국의 방침 대전환

- FTA를 통한 무역 및 투자확대뿐만 아니라 체결국간 정치외교 관계 공고화와 새로운 동맹관계 구축을 통한 안보역량 강화를 도모
- WTO에 의한 다자간 통상정책을 지향했던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국가들이 FTA체결을 위해 2001년부터 적극 나서기 시작  
→ WTO나 FTA를 모두 중시하는 양방향 통상정책으로 전환
- ※ 중국의 세계 제조업 생산기지화 및 세계 최대 투자유치국중의 하나로 급부상에 우려감 증폭으로 FTA를 통한 시장확보와 투자유치 도모
- ※ 중국주요 제조업 생산의 세계 순위 : 철강(1), TV 수상기(1), 시멘트(1), 원유(5), 발전(2), 면직물(2)/휴대폰 가입자(1), 전화라인(1)
- ※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중 중국기업 11개사 포함(한국 12개)
- 중국은 2000년 가을에 ASEAN과 FTA체결 검토를 개시, 대만, 홍콩도 각각 관심국과도 FTA협상을 모색하기 시작함
- 방향전환 이유

- 세계적으로 FTA체결이 급증하여 WTO체제 내에서의 다자간 통상협상에만 의존할 경우 경제적으로 고립된다는 우려감이 확산
- NAFTA, EU등의 경험에서 볼 때 FTA가 관세철폐효과에 그치지 않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인식 형성
- NAFTA의 멕시코경험에서 비추어 FTA는 국내경제개혁을 촉진시키고, 개혁성과를 유지하는 효과발생
- FTA에 의해 확대된 경제협력이나 정치경제관계 강화도 중시
- UR의 장기화나 새로운 라운드 출범 및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FTA가 WTO에 비해 단시간에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달성수단으로 인식
- EU-멕시코 FTA등 제3국체결 FTA에 의해 자국에 불이익 발생시작

## 5. 협정내용의 확대 및 심화

-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이 경제통합의 초기단계로 관세인하 및 철폐가 주요 내용이었지만 최근의 FTA는 투자보장, 조세협약, 경쟁촉진법의 조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함
- 서비스무역, 상호인증,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WTO에 없는 투자, 경쟁,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규정까지 새로 포함 추세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기업의 다국적화 진전을 반영
  - 예) EU-멕시코 FTA는 투자, 경쟁정책 규정 포함. 미국-요르단 FTA는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관련 규정 포함. EU-남아공 FTA는 투자, 경쟁정책, 환경관련 규정이 포함됨

각 FTA에 포함된 항목 비교

구 분	미·이스라엘	NAFTA	미·요르단	FTA	캐나다·칠레	멕시코·칠레	EU·멕시코	호주·뉴질랜드
관세철폐	■	■	■	■	■	■	■	■
수량제한금지		■		■	■	■	■	■
세이프가드조치	■	■	■		■	■	■	■
반덤핑·상계관세제도	■	■		■	■		■	■
원산지규정	■	■	■	■	■	■	■	■
관세증가·세관통관절차		■	■	■	■	■	■	■
투자		■		■	■	■	■	■
서비스	■	■	■	■	■	■	■	■
기준·인정(MRA)	■	■		■		■	■	■
위생식물 검역	■	■		■		■	■	■
정부조달	■	■	■	■		■	■	■
지적재산권		■	■	■		■	■	■
경쟁	■	■		■	■	■	■	■
분쟁해결	■	■	■	■	■	■	■	
국제수지조항	■		■				■	■
일반·예외		■	■		■	■	■	
경제기술협력	■		■				■	
합동위원회		■	■		■		■	
전자상거래			■					
인력이동		■	■		■	■		
환경		▲	■		▲			
노동		▲	■		▲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통상백서 2001

## Ⅱ. 世界 FTA 協商動向 및 허브指向國 戰略

### 1. 世界의 FTA 협상동향

#### ① 협상동향

- 세계의 FTA 협상, 연구 및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FTA 총건수는 조만간 20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FTA 공백지대인 동아시아에서도 FTA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지역횡단적인 협정도 활발함
  - 현재 세계각국 및 지역에서 협상중인 FTA는 약 20건, 제안 또는 검토단계인 것은 그 이상임

#### ② 주요국별 · 지역별 최근 FTA 협상동향:부록 1

### 2. 世界 FTA 허브국 지향국가 전략

#### ① 멕시코 : FTA를 다자간보다 중요시

#### □ FTA 추진 전략: 아시아는 최종 목적지

- 90년대 들어 자유시장경제정책에 따라 미국, 캐나다와의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시작으로 EU, 중남미 주요국, 이스라엘 등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반면, WTO 다자간 또는 일방적인 무역자유화는 매우 소극적임
- 멕시코의 통상정책의 핵심은 지역주의 및 양자주의이며, FTA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

- 일본·미국·유럽과의 등거리, 동일조건에서의 경제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나 FTA 미체결국인 일본에게 불이익 발생
  - 멕시코는 FTA 미체결국산 상품에 적용하는 실행관세율은 단순평균으로 약 16%에 달할 만큼 높은 수준임
  - FTA 미체결국에는 정부조달, 발전, 인프라 등 프로젝트입찰에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지 않으며, 가격평가나 응찰조건 등에서 FTA체결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

### 멕시코진출 일본기업사례

- 멕시코-EU FTA가 2000.7월 발효됨에 따라 불이익 발생 우려가 큼
  - 현지진출 일본기업의 80%가 일본과의 FTA가 없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음
  - 마킬라도라나 PITEX같은 보세제도 폐지→대안으로 "산업개발프로그램(PROSEC)"을 잠정 시행(단, 상사 활동에는 미적용)
  - 정부조달, 인프라프로젝트 참여에 불이익(일회성 대형프로젝트 특성상 일본산 자재 및 부품비율이 높음), FTA체결국간 정부인정협정통한 업체인증획득 부담 경감
  - 멕시코진출 일본자동차업체에 중요한 인강판의 경우 EU산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일본철강업체가 크게 불리

### □ FTA 추진 현황

- 94년 NAFTA 발효후 FTA체결을 가속화하여 FTA체결선은 32개국 (EU가맹국 15개국 포함), 협정수는 11건에 달함
- 추가로 파나마, 싱가포르, 일본, 에콰도르, 페루등과 협상중
  - 95년 G3 자유무역권(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리비아, 98년 니카라과, 99년 칠레(92년 기 발효, 기술규정, 투자, 정부조달,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등을 추가, 2000년에는 금융서비스 포함 협상개시)
  - 2000년 이후에는 이스라엘(2000.7 발효), EU(2000. 7 발효), EFTA (2001. 7월 발효)등과 FTA 체결
- 2005년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창설을 위해 브라질과 함께 중남미 양대세력
  - 멕시코는 NAFTA회원국이자 중미 및 북남미와 FTA체결

## 멕시코로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단위 : 백만불)

	88-93(연평균)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유입액	3,705	10,973	9,526	9,938	14,044	11,933	12,534	14,706	24,731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각년호 종합

### FTA를 통한 멕시코의 투자유치와 수출확대 성공사례

- 북미시장을 노린 다국적기업들의 대거 멕시코로 투자, 멕시코 주요 수출 기업으로 변모
  - 완성차 경우 GM, Ford, Chrysler, Volkswagen, Nissan이 멕시코에 현지 공장 가동, 세계수준의 자동차생산기지로 변모(이들 5개사의 수출규모는 2000년 기준 270억불로 멕시코 총 수출의 17% 점유)
  - 자동차부품의 경우 세계적인 Lear, Vieston의 멕시코 현지공장 수출액은 20억불 규모로 멕시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정보통신 및 전자분야는 IBM, Sony, GE, Thomson, LG, Sanyo, Samsung, XEROX등이 현지공장을 가동, 수출에 기여

- 최근에는 기존 미주대륙내 파트너에서 벗어나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협상 진행 중
- FTA에 대한 멕시코내 여론은 대체로 찬성 쪽인데 이는 NAFTA 체결 이후 경제성장의 효과를 실감했기 때문임
  - ※ 특히, NAFTA 이후 멕시코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

### 멕시코의 경제위상(2001년기준)

- 중남미 최대시장으로 세계 12위 교역국
  - 수출 1,585억불, 수입 1,683억불(교역규모 3,268억불)
- 인구 9,748만명(2000년): 한국 4,728만명, 1인당 GDP 6,031불
- GDP 6,178억불(세계 10위): 한국 4,222억불(세계 13위)

## □ 최근 추진중 주요 FTA

### ① 멕시코-일본: 2004.1.1일 발효 목표로 추진중

#### ○ 추진일정

- '98년부터 양국간 FTA방안 연구, 2001.6월 양국정상간 FTA추진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설치 후 6차례 협의 진행
- 2002.10월 APEC 정상회담서 양국 정부간 FTA 협상 공식개시 발표, 협상완료(03년 중순 목표), 의회 FTA 비준(03년 하반기)목표
  - ※ 농산물 분야에서 다소 이견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상당한 의견접근 상태이기 때문에 2004.1.1부 발효 전망

#### ○ 주요 내용

- 무역 및 투자, 정부조달, 수입구제제도, 서비스, 인력이동, 무역원활화(통관절차 및 여타 교역관련 절차 개선), 기술표준 상호인정,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노동, 규제개선, 에너지 및 자원, 환경, 회계, 분쟁해결제도
- 일본은 멕시코의 평균관세율 16.23%을 미국이나 EU에게 적용되는 5% 내외를 요구
  - ※ 멕시코는 개발도상국임을 강조, 일본과 연차적 관세인하계획 요구
- 멕시코가 체결한 기존 FTA의 원산지 규정 포함 요구
- 일본의 관세간소화 등 통관절차 간소화 요구에 대해 멕시코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② 남미 3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자동차 무역협정

- 2001년부터 이들 3개국과 자동차 무역자유화를 위해 협상을 시작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04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2004년 이후 자동차뿐만 아니라 주요 공산품으로 대상품목을 확대

## □ 구조조정 지원정책

- 산업개발프로그램(PROSEC)
  - NAFTA 303조에 따라 2001년부터 과거 멕시코 정부가 임가공수출업체들(마길라도라)에게 부여했던 관세면제 조치가 철폐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산업개발프로그램(PROSEC)”을 도입
  - 이 제도는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이 대미국 또는 캐나다 수출업체가 수입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0~5%의 특혜관세를 부여
- 제조업 생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인력개발 프로그램 추진
  -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으로 제조업부문 투자 급감에 대한 지원책

## ② 칠레: 시장 확보, 투자유치, 구조조정수단으로 활용

### □ 통상정책

-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외국인 투자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Opened Regionalism을 채택, 추진
  - 일방적인 국내시장개방정책을 70년대 중반부터 계속 추진
    - 수입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되 모든 수입품에 대한 단일관세율을 적용
    - ※ 1991년(15% →11%), 1998-2003년(11%→6%로 단계적 인하)
    - ※ 다만, 소맥, 밀가루, 식용유, 설탕 등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이 사전에 정해놓은 일정 가격대 이하로 낮아질 경우 기본관세(7%)외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가격대제도(Price Band System) 운용
  - 양자간 시장개방: 90년대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ECA(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협의의 FTA 2종류의 양자간 자유무역정책을 추진
  - 다자간 협상에도 적극 참여
    - Cairns 그룹(농산물 보조금이 없는 16개 농산물 수출국 그룹), APEC 회원국, WTO 등

## □ FTA 정책

- 국내시장이 협소하여 성장지속, 기술혁신, 자원의 효율적 배분, 구조조정 촉진수단으로 FTA를 적극 활용
- FTA 체결국
  - '92년 멕시코와 FTA체결이후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9개국과 FTA를 체결
  - '97년 캐나다와 체결, MERCOSUR와는 '96년에 회원국으로 참여
  - EU와는 2002.5월, 한국과는 2002.10월, 미국과는 2002.12월 협상타결
  - 미국과 2000.12월에 FTA협상을 개시, FTAA에 참여
  - 일본과는 FTA체결이 필요하다는 양국간 연구결과를 2001.6월 발표
- 칠레의 FTA 효과
  - 시장규모: 1500만명(국내인구)→ 9억명 확대
  - 무역·투자관련 규정의 명료화로 신인도 제고
  - 시장확대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외교적 유대관계 강화
  -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Country Risk” 등급 상향화
  - 선진기술에의 접근 제고 및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로 생산성 증대
  - 경쟁열위부문의 구조조정촉진으로 경제체질 강화와 고용촉진
  - 남미의 경제 우등생 국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 □ 시장개방 보완책

- 급속한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최저수입가격(VAM: Valores Aduaneros Minimios)제도를 운영
  - ※ AVM :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최저 수입가를 설정하고 동 가격미만일 경우 수입을 금지
- 500만불 이상의 투자프로젝트와 공공·통신부분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의무화

### ③ 싱가포르: 전 방위적 자유무역협정 추진

#### □ FTA 추진배경

-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소국시장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및 지리적 이점활용
  - 자원빈곤으로 인한 높은 수입의존도(식량, 에너지, 원자재, 식수 등),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해 경제성장의 한계(전자, 석유화학 이외의 제조기반 취약)
  - 수입상품의 99%가 무관세 수입(술, 담배, 자동차, 유류제품 제외)
  - 비관세장벽도 일부 소비자보호제도를 제외하고 거의 없음
- 지역주의확산 및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자구책 확보
  - 해외시장확대 및 외국인투자의 중국으로의 이탈 완화
  - 싱가포르의 최대시장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로 대변되는 경제블럭결성 움직임에 대처
- 아시아통화위기이후, 종래의 ASEAN 역내협력을 우선하는 자세에서 부터 정책전환
  - 종합경쟁력에서 싱가포르와 크게 차이가 나는 ASEAN과 다소 거리를 두는 쪽으로 선회
  - 외교정책도 ASEAN의 틀에 머무는 것보다도 뉴 라운드, 아세안을 뛰어넘은 지역과 양자간 협정에 비중확대
    - ASEAN역내국들의 개혁추진이 국내저항에 봉착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미흡하여 역내경제통합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
- FTA 체결 대상국의 포지션 적극 활용
  - 싱가포르의 경제규모가 크지 않고 농산물을 전량수입에 의존하여 체결 대상국의 국내에 미치는 파장이 작다는 점
  - 금융 및 IT 선진국이며, 화교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등이 체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음

## □ 추진현황

- 동아시아에서의 통상확대, 대양주와 협력강화, 미주지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진출확대 목표
- 최근 추진동향
  -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창설을 위한 EPT(역내특혜관세)계획에 의거 2001.1.1일 부로 전 무역품목(5,859품목)의 역내관세 철폐
  - 2000. 11월 뉴질랜드, 2002년 1월 일본과 체결
  - EFTA와는 2002. 6월에 체결, 2003. 1월 발효예정
  - 호주와는 2002. 11월에 체결, 2003. 6월 발효예정
  - 미국과는 2002. 11월 FTA중점사항을 합의하고 12월초에 타결,
  - 캐나다와는 협상이 진전중
  
  - 멕시코, 칠레를 중남미시장 진출의 전략적 동반자로 삼고자 2000. 6월 협상을 개시하여 상당한 진전 보임
  - 싱가포르- 뉴질랜드-칠레 3국간 협상을 2003년부터 개시예정임
  - EU, 홍콩, 한국 등과도 FTA 구상중
  - 중국-ASEAN 자유무역지역구상에도 전향적인 자세임

## □ 주요 FTA골자

- 싱가포르-일본 협력 파트너쉽(JSEPA): 2002.11.30일 발효
  - 주요 교역국이자 투자유입국인 일본과 체결한 FTA로 협상개시 1년만인 금년에 타결
  - 양국무역량의 98%이상을 차지하는 6928개 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
    - ※ 10개 민감품목(광산물 및 플라스틱)은 2010.1.1까지 관세철폐
  - 제 3국의 우회수출방지를 위한 원산지 규정 마련
  -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 외에 금융, 정보통신 신기술, 인재양성, 품질표준등의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세관통관절차 간소화등 무역원활화분야를 포괄
    - ※ 대부분의 농산물과 일부 석유화학제품을 관세인하대상에서 제외되어 관세철폐 분야 면에서는 불완전한 FTA임

### 일본-싱가폴 FTA 주요 내용

내 용	일 본 측	싱가포르측
관세철폐	-무관세율 84%에서 94%로 -화학제품 일부, 석유제품 일부 섬유제품 등에 관세철폐 -목재/담배/양주 관세철폐 -식용유/마가린/유제품등은 예외	-100% 관세철폐 -관세품목이던 맥주 등 주류 4개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철폐
서비스교역	유통/금융/의료/운송/사회 사업/연구개발/경비 등 추가 개방	연구개발/리스/전기통신/유 통/교육환경/운송추가 개방
상호인정	전기제품/전기통신기기 수출검사절차를 수출국 절차만으로 간소화	
간이거래서류 전산화	일본의 문서교환 서버와 싱가포르 문서교환 서버 연계	
사람의 이동	-투자가 자격입국/상대국 기업과의 계약에 의한 입국 가능 토록 약속 -토목공업분야등 상대국 기술사자격 인정 -자국민 의사가 상대국에서 자국민 환자 진료 가능하도록 인정	

#### ○ 싱가포르-미 FTA(SAFTA): 2004.1.1 발효전망

- 2000. 11월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추진계획 발표
- 2년에 걸쳐 4차례의 공식회담을 통해 2002.11월 대부분 내용에서 합의 도달
- 상품,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및 전자상거래, 우회수출방지, 투자 및 노동/환경부문 포함
- ※ 정부투명성(정부규제수립시 투명성 제고, 공개청문회, 제출자료에 대한 접근, 제 3자 개입 보장)등 선진적 신 조항 삽입
- ※ 인도네시아부속도서(빈탄 및 바탐)에서 제조되는 특정 전자제품(하이 테크 IT제품)을 싱가포르 산과 동일시하여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시 무관세 대우
- 싱가포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나 미주 경제블럭을 피해 수출시장을 유지하면서, 관세철폐에 따라 경쟁국 대비 수출을 확대 가능

※ 미국은 전통적으로 싱가포르의 최대 수출시장의 하나이자 최대투자국으로 2000년 기준 미국의 對싱가포르 투자는 제조업 총 투자의 1/2, 서비스부문 투자의 1/3 차지

-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소프트웨어 및 로열티 수입확대, 싱가포르 위성방송을 비롯한 통신시장, 금융시장 등 아직 완전개방이 되지 않은 고수익 분야로 진출 확대기대

#### ○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3국간 FTA

- 2002.10.27일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한 3국 대표는 3국간 자유무역 협정 추진을 합의

- 2003년 초부터 실무협상을 개시, 2004년 APEC 정상회담까지 완료 예정

- 3국의 협력관계가 상품과 서비스, 투자를 증진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와 태평양, 아시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뉴질랜드와 칠레간의 농산물 분야가 최대 쟁점

#### 싱가포르의 경제적 위상

- 세계 15위 교역국(2001년 기준)
  - 수출 1,218억불, 수입 1,160억불(교역규모 2,378억불)
- 인구 413만명,
- 1인당 GDP 25,425불, GDP 826억불(한국의 약 1/4)
- 인구 1당 수출액: 세계 1위 29,781불(한국 3,178불)
  - ※ 재수출제외시 16,178불

### Ⅲ. 世界 주요국의 FTA 推進 戰略

#### 1. 美 國

##### □ FTA 정책 방향 및 전망

- 세계적으로 확산중인 FTA 조류에 따라 상호 호혜적인 무역관계 창출, 국제협상무대 및 안보 면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FTA체결 추진으로 통상정책방향 전환
- WTO내 산적한 이슈(노동, 환경, 투자, 경쟁 및 남북 문제 등)에 대한 다자간 일괄타결 전망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어, FTA가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무역자유화 해법이라는 인식이 확산
- 통상협정의 비준권을 가진 미 의회 또한 미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지니거나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슷한 생각을 지닌”(like-minded) 국가들과의 선택적 FTA체결을 선호할 것으로 보임

##### □ 주요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 미국이 체결한 FTA는 현재 NAFTA, 이스라엘 및 요르단과의 자유 무역 협정 등 3건에 불과하나 추진중이거나 연구중인 것을 포함하면 추가로 10건 이상이 됨

##### ① 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2002. 12월 타결

- 싱가포르의 높은 무역자유화 수준, 양국 IT 제조업간의 높은 협력 가능성, 농업-철강-경공업 등 미국내 정치력이 높은 업종과의 경쟁 가능성이 적다는 점등이 신속한 협상 진행에 도움이 됨
- 미국이 아시아권과 체결할 첫번째 FTA로 향후 아-태 지역국가와의 FTA 체결에 “교범”으로 삼는 것은 물론 아태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무역의 전략적 교두보 구축에 주요 역할을 기대
- ※ 미국은 ASEAN-중국, ASEAN+3방식의 FTA추진움직임을 강하게 의식

## 미국의 FTA 추진현황

구분	자유무역협정	비고
시행중	미-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1985년 발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94년 발효
	미-요르단 자유무역협정	2001년 발효
추진중	미-칠레 자유무역협정	2002.12월 체결
	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2003년 초 체결전망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미주 34개국
논의중	미-중미 자유무역협정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미-호주 자유무역협정	
	미-모로코 자유무역협정	
	미-아프리카 5개국 자유무역협정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미-이집트 자유무역협정	
	미-인니/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연구중	한국/대만/뉴질랜드 등	ITC 타당성 조사

### ② 미-칠레 무역협정: 2002년 12월 협상타결

- 남미국과 최초로 체결한 FTA로 FTAA 협상의 주도권 장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가치를 보유
-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주요 이슈 포함

### ③ FTAA: 2005.1.1이전에 협상타결, 2005.12월이전 발효 목표

- NAFTA이후 미주 34개국(인구 8억명)을 포함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목표
- 2002.11월 에콰도르 각료회담, 브라질과 미국을 공동의장국으로 선출
  - ※ 2002.12.15~2003.1.15 기간 중 각국 시장접근(Market Access) 제안서 제출, 2003년 6월까지 마무리 계획
- 그러나, 중남미국가들의 정치·경제적 불안정, 미국내부적으로는 노조, 섬유·농업부문의 반대 등으로 2005년 발효목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미국의 협상추진전략은 "Divide & Rule"인 것으로 보임

- ※ 일부 중남미국가를 대상으로 개별 FTA 논의를 진전시킴으로써 중남미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을 견제하여 협상주도권 획득
- ※ 중미 5개국과의 FTA논의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중임

#### ④ 기타 논의중인 자유무역협정

- 미-호주 : 2002.10.4일 호주산업장관 방미중 논의 개시, 정식협상 개시시점은 아직 미지수, 미 농업부문 강력한 반발 예상
- 미-중미 5개국 : 중미공동시장국가들로 2003년중 정식 협상개시, 섬유업계-농업부문의 반발 예상
- 미-모로코/남아프리카 5개국 : 내년초 협상 개시 전망
- 미-이집트/인니/필리핀 : 논의단계로 이중 인니/필리핀은 ASEAN 지역내 교두보 구축의 의미가 강함

## 2. EU

### □ FTA 정책방향

- 1970년대부터 양자간 FTA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주요 선진국중 가장 먼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 FTA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현 WTO 규정을 넘어서는 사항(투자, 경쟁 등)에 대해서도 규정
  - FTA 체결 결정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정치외교관계 등을 고려, 상품 외에도 정치, 과학, 인권, 테러방지 등 포괄적인 형태로 추진
- FTA 협상진행시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하에 추진
  - 최소한 상품교역의 90%이상을 망라하되 질적목표(qualitative target)를 중요시
  - 가능한 제외되는 분야가 없게 하되, 체결상대국의 특수성 고려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과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 EU는 통상적으로 체결상대국보다 무역자유화율이나 속도가 더 빠르며 경과기간도 짧음

## □ 주요 FTA 추진현황 및 전망

### ① EU 확대협상

- 2002년에 협상이 타결되어 10개국(2004. 5. 1일부로 정식회원국이 됨)
  - 사이프러스, 체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경우 2007년 가입 목표로 협상 추진

### ②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2010년 FTA발효목표

- 2010년까지 EU와 지중해연안 12개국과 개별협정을 통해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목표(공산품 자유무역과 농산물의 점진적 자유화 목표)
- 대상국 12개국 :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레바논, 터키, 사이프러스, 몰타
- 국가별 추진현황
  - 관세동맹 : 터키('96), 사이프러스(2002)
  - FTA 완료 국가 : 튀니지('95), 이스라엘('95 잠정협정 기발효, 2000 신규협정으로 대체), 모로코('96), 요르단('97), 이집트('99), 알제리(2001)

### ③ EU- GCC(Gulf Cooperation Council) FTA

- EU 협상지침은 FTA전제조건으로 GCC 관세동맹 설립방안을 제시
  - GCC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 무관세, 5.5%(필수품), 7.5%(사치품) 등 3개 관세군으로 구분
- GCC 관세동맹이 2003년에 발효되는 대로 GCC와 FTA추진 예정

### ④ EU-멕시코: 2000.7.1 발효

- 미주국가와 최초로 체결, 정치·경제·무역·문화를 망라한 포괄협정
  - ※ 관세 인하 일정도 여타 FTA와 비교할 경우 신속
- 주요 내용(무역분야)
  - EU는 2003.1.1일, 멕시코는 2007.1.1일까지 공산품수입관세 전면자유화

-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무역관련 모든 분야를 포괄, 협정발효 혹은 각 분야별 일정에 따라 자유화 일정 규정
  - ※ 2010년까지 EU는 대멕시코 수입의 80%, 멕시코는 대EU 수입의 42% 자유화

#### ⑤ EU-MERCOSUR FTA: 2003년중 타결목표중이나 지연

- 2001년에 시작된 FTA협상은 무역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장벽 철폐뿐 아니라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투자, 무역분쟁 해결 분야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 없음
- 양측간 최대 이점은 농산물 분야이며, 현재 Mercosur-EU Business Forum이 설치되어 활동중

#### ⑥ 아시아 등 기타

- 대만, 싱가포르와 FTA가 논의되고 있으나 체결 가능성에 대한 검토 수준으로 EU보다는 대만과 싱가포르가 적극적
  - ※ 최근 유럽의회, 아시아와의 파트너십 강화 촉구결의안 채택
- 최근 EU는 이란이 EU와 정기적으로 정치적 및 반 테러 문제를 협의할 경우 FTA협상 개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 EU 기업의 대응동향

- EU산업계는 90년대 초부터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동구진출에 나섬(소비시장보다는 생산기지 확보차원)
  - 유럽기업들의 활발한 동구진출로 금융, 무역, 생산, 기술분야에서 광범위한 분업체제가 광범위하게 형성
  - 원가경쟁력을 상실한 EU제조업체로서는 중동구지역이 마킬라도라 (미-멕시코 국경지역지대에 형성된 임가공 수출용 생산기지)의 역할 기대

### 세계주요기업들의 중동구 진출 현황

분 야	진 출 현 황
전기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년대초의 역외 가공무역거래를 위한 합작투자가 주류 이후 민영화기업 인수, 그린필드투자방식으로 확대</li> <li>- 필립스(폴란드, 헝가리, 체크), 지멘스(체크, 헝가리, 폴란드), 톱슨(폴란드)등 EU대기업들이 가장 먼저 생산거점 확보하였고 노키아(헝가리), 에릭슨(헝가리)도 뒤를 이음</li> <li>- 미국 GE, IBM등 대기업들의 초기투자에 이어 플렉스트로닉스, 솔렉트론 등 세계적인 전자제품 위탁 생산서비스(EMS)업체 진출이 활발</li> <li>※ Flextronics는 헝가리만도 4개 공장가동중이며 헝가리 6대 수출 기업으로 성장, Solectron은 루마니아에 생산거점확보 증산 추세</li> <li>- 일본 소니는 헝가리, 폴란드, 마쓰시타는 체코에 생산기지 집중 확보</li> <li>- 한국기업들은 삼성(컬러TV, CRT/전자부품)이 헝가리, 대우는 폴란드(컬러 TV/냉장고)에 생산기지 확보</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스바겐, 피아트 등 유럽기업들이 동구내 확보한 기반 구축</li> <li>- 폭스바겐(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피아트(폴란드), GM(폴란드, 헝가리), 르노(슬로베니아, 루마니아)가 동구투자를 주도</li> </ul>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통신업체들이 민영화과정에 참여, 중동구 통신시장 거의 장악</li> <li>- 프랑스텔레콤(폴란드), 도이체텔레콤(헝가리, 체크), 네델란드 KPN (체크, 불가리아), 그리이스 OTE(루마니아)</li> </ul>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유통업체들이 헝가리, 폴란드, 체크, 루마니아등 주요 시장 선점</li> </ul>
섬유/의류/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이태리, 영국, 네델란드업체들을 중심으로 역외 가공무역 형식의 거래로 동구에 진출하여 저임금, 무관세, 수입쿼타 확대 혜택을 향유</li> </ul>

### 3. 중 국

#### □ FTA 정책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대응하여 WTO, FTA 등을 통한 국제 사회질서에 주도적으로 참가
  - 2001.12월 WTO정식가입, 2002.1.1일부로 발효된 가입 양허안에 따르면 2008년까지 점차적으로 시장개방 예정

## 중국의 WTO가입 다자간·양자간 협상 주요 합의내용

합 의 내 용	
무역제도	- 수입허가증 관리(33종 383세목)를 2005년까지 철폐- 수량할당등 수량제한을 2005년까지 폐지(그때까지 할당량을 현행수준에서 연율 15% 비율로 확대)- 비정부기관 구매 기계전자전기제품 입찰실시(62종 107개 세목)을 2005년까지 입찰규정 폐지
농산물	- 관세율을 2005년까지 평균 15% 수준으로 인하 - 설탕, 면화등 수입쿼타대상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할당(TQ)제도 도입 - 농업보조금 비율은 총생산액의 8.5%로 동결
광공업품	- 관세율을 2005년까지 평균 8.9% 수준으로 인하- 자동차 관세율은 완성품은 현행 100(내지 80)%에서 2006년 7월까지 25%, 부품은 2006년까지 평균 1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자동차 수입수량제한을 2005년까지 폐지 - ITA(정보통신기술협정)에 서명, 정보통신기술제품의 관세율을 현행 13.3%에서 2005년까지 0세율화- WTO가입후 12년간 중국은 수입 급증에 대한 제품별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 미국은 대중섬유류 수입수량제한을 2004년까지 철폐, 2008년까지는 중국섬유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세이프가드조치 적용
서비스	- 가입 2-3년이내 외자 출자비율 규제 완화 - 가입 5-6년이내 업무범위제한, 지역제한 철폐 - 기본전기통신협정에 서명, 무선호출, 이동전화, 국내 및 국제서비스 등에 WTO경쟁원칙 도입 - 금융협정에 서명

- 시장개방에 따른 제도정비가 마무리되는 2008년 이후 정식 FTA 협정체결을 고려중
  - ※ 관세율을 1992년부터 현재까지 6차례 인하, 평균관세율은 당초 42.2%에서 현재 12.0%로 개도국 평균수준에 근접(양허관세율 2005년 10%, 2010년 5% 수준)
- 중국주도의 FTA창설을 통해 국제정치 및 경제적으로 위상강화 도모
  - 2002.11 중국-아세안정상회담에서 중국-아세안10개국간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키로 합의

- 자유무역지대와 별도로 ASEAN 국가중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 대해 최혜국지위 부여를 약속함
- 『메콩강유역 운수협정』, 『정부간 전력교역협약』 및 『남중국해 각방 행동선언』을 동시에 진행
  - ※ 중국은 일본보다 먼저 아세안 국가와의 FTA 협정체결을 통해 이 지역의 주도권 놓고 일본과의 경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3 정상 회담(2002. 11. 5일, 프놈펜)에서 주룽지 총리는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지대(FTA) 설립을 제안

#### □ 중국- ASEAN FTA 프레임워크 골자

- 2003년초부터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실무협상 착수
  - 산업보호를 위하여 품목별로 inclusion, temporary exclusion, sensitive, general exception의 4분류로 나누어 점진적 관세인하계획
  - 허가증, 쿼터, 수출입 절차 등 비관세장벽을 점차적으로 철폐하고 WTO가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서비스 및 투자관련 혜택을 제공 계획
  - 국가별 일정
    - 아세안 창설 원조 6개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과는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 작업을 완료
    - 아세안 후발가입국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2015년까지 자유무역지대에 합류 예정
- 서비스무역, 투자 등 전반적인 경제협력을 포괄
  - 산업별로 환경, 자원, 금융, 전자상거래 및 여행업 등 포함

#### □ 중국- ASEAN의 무역 및 산업구조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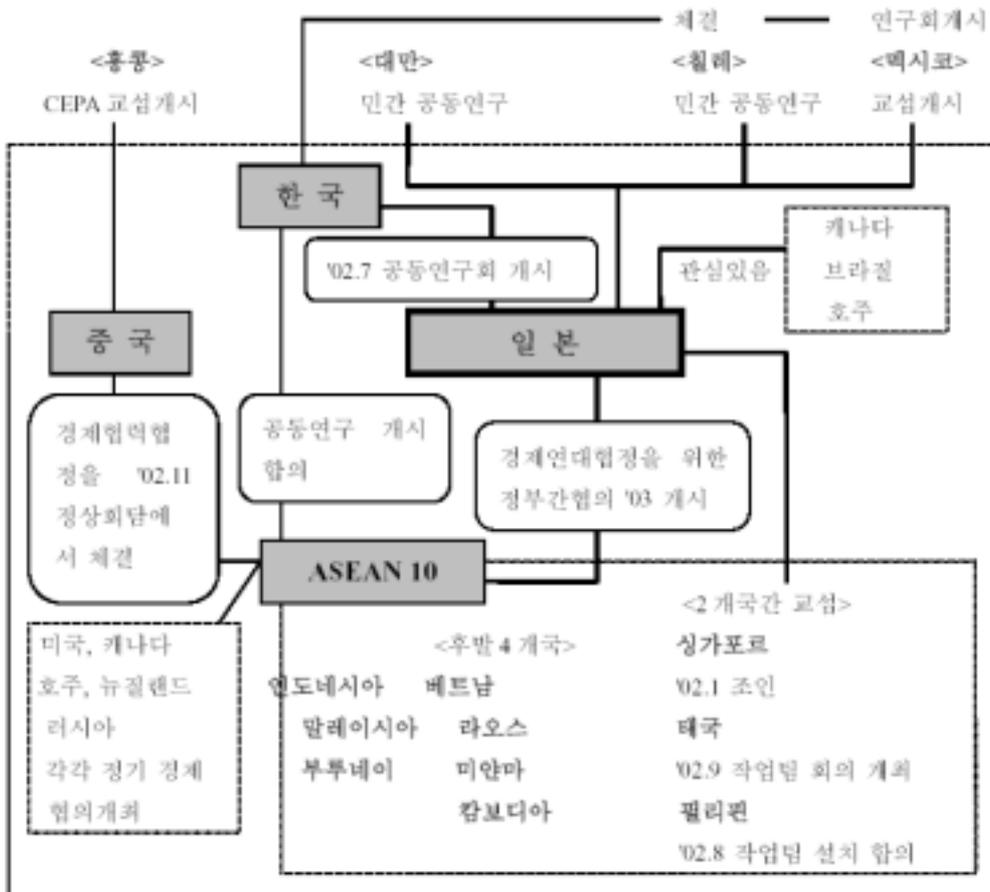
- 주요 수출 및 투자유치국은 홍콩, 일본 및 대만 등으로 유사하며 현지 진출 다국적기업들이 수출을 주도

- 중국수출에서 외국계기업 수출비중(%) : 9(1989)→48(2001)
- 중국의 주종수출품목별 다국적기업 비중(2000년기준, %)
  - 섬유사 및 직물(28), 완구(45), 여행용백(37), 전자회로(93), 컴퓨터 및 사무기기(85), 핸드폰(96)
- 중국은 전통적인 노동집약형 제품에서 전자, 기계제품까지 아세안 수출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음
  - 방직품, 의류 및 신발 등 제품에 있어서 중국의 대미시장 점유율은 1/4, 아세안 4개국의 점유율은 1/5이나 다자간섬유협정 WTO복귀로 2005.1.1일부로 미국과 유럽의 대중 쿼터제한이 완전 풀리게 되면 중국의 전세계 의류수출비중은 20%에서 47%로 증가 전망
    - 중국의 전자제품과 정보통신기기 수출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시장에서 아세안 국가의 비중을 잠식하고 있음
- 중국-아세안 무역투자
  - 1995년이래 중국-아세안교역은 연평균 15% 성장, 2001년 양 지역간 교역액은 416.15억불(전년대비 5.3% 증가)
    - ※ 중국은 아세안의 6대 교역국, 아세안은 중국의 5대 교역국
  - 중국-아세안 주요국가별 무역비중(2001년말 기준)
    - 중국 총수출에서 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수출비중은 각각 1.8%, 1.1%, 0.7%, 및 0.7%로 매우 낮음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6.2%, 5.2%, 5.9%, 7.1%로 시장개척의 여지가 매우 많다고 판단
  - 중국-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비중(2001년말 기준)
    - 아세안의 대중국 투자 : 계약액기준 총17,972건, 534.68억불, 실제투자 기준 261.75억불(중국 FDI유입액의 6.6% 점유)
      - ※ 중국기업이 이들 지역에서 수주한 공사 및 노무계약액 195.81억불, 완성액 124.43억불에 달해 이들 지역으로부터 외자유입이 매우 많음
    - 중국의 대아세안 투자 : 740건 총투자액 10.91억불

## 4. 일본

### □ FTA 정책

- "이중 접근방식(듀얼 어프로치)"으로 전환
  - 다자간 교섭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2국간 협정인 FTA로 보완하는 "이중 접근방식"으로 전환
  - ASEAN과 FTA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2003년에 개시하기로 합의(2002. 9월), 이와 별도로 태국과 2개국간 교섭을 위해 작업반을 설치하였으며, 필리핀과는 작업반을 설치 예정



(자료원: JAPAN RESEARCH INSTITUTE, ASIA MONTHLY 11 월호)

- 동아시아와의 EPA(경제연계협정)/FTA가 무역자유화를 통해 이익 창출을 전망
  - 일본제품에 대한 단순평균 관세율: 미국 3.6%, EU 4.1%, 중국 10%, 말레이시아 14.5%, 한국 16.1%, 필리핀 25.6%, 인도네시아 37.5%
  - 일본과의 교역비중이 가장 큰 동아시아지역의 관세율이 가장 높음

### □ 일본의무성의 일본 FTA전략보고서(2002.10)

- 한국 및 ASEAN이 우선 협상상대, 멕시코도 주요 관심대상국임
  - 멕시코는 NAFTA 및 EU와의 FTA를 기체결, 일본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내고 있고, 멕시코가 NAFTA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 우선순위국가 선정근거
  - 지역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치, 경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
  - 긴밀한 경제관계임에도 비교적 높은 무역장벽이 존재하여 일본무역 및 투자 확대에 장애가 되는 국가
  - 실현가능성과 정치외교적 중요성

### ○ 국별 세부내용

#### 《한국》

- 인접국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하며 양국간 긴밀한 인적 접촉을 감안시, FTA등을 통해 긴밀한 경제의존관계를 구축할 필연성이 높음
- 한일 FTA는 공동연구 후, 양국 재계에 의한 포괄적인 경제연계협정을 지향해야 한다는 공동제언이 나와 있는 상황임
  - ※ 투자협정은 2003.1.1 정식발효
- 일본산업계에서의 요망을 반영하여 산관학의 공동연구회를 두고 구체적 FTA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공동연구를 조기에 종료하고 내년 한국 신청권과 조속히 협상에 착수해야 할 것임
  - ※ 한일 FTA 체결이 실현된 후,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한중일 3국간의 경제연계 가능성과 동아시아 경제연계를 위한 방책 등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임

## 《ASEAN》

- ASEAN과의 관계강화는 일본의 대아시아 외교 기본의 하나임. 중국도 ASEAN과 FTA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으나 일본으로서 ASEAN과의 경제적 안정과 동아시아의 안정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ASEAN과의 균형잡힌 관계를 FTA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 일본의 ASEAN과의 무역액은 미국 다음으로 많으며, 그 95%는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가 점유
- 2002.11 ASEAN정상회담에서 10년 이내의 가능한 빠른 시기에 ASEAN과 FTA를 체결하기로 공동선언함
  - 고율관세로 보호되고 있는 일본의 농산물과 ASEAN측의 노동인력 이동제한 완화 요구등이 가장 큰 쟁점 전망
  - 태국은 세계최대의 쌀 수출국임을 감안, 일본 농수성은 중국과 ASEAN의 FTA협상에 끌려들어가 일본이 ASEAN과 성급히 협상하는데 반대입장
  - ※ ASEAN의 대일본 농림수산물 순수출액은 약 70억불로 대중국 순수출액의 14배에 달함

### 농수산물분야의 일본과 FTA체결 대상국간 무역점유율(2000년)

	일본수입에서의 점유율	상호수출입에서의 점유율
싱가포르	4.8%	1.5%
멕시코	18.9%	6.0%
칠레	47.1%	38.4%
한국	9.5%	4.5%

자료 : 일본재무성

## 《중국, 홍콩》

- 중국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한중일+ASEAN을 중핵으로 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연계를 형성하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FTA가능성을 고려
  - ※ WTO협정 이행상황, 중국경제 동향을 포함한 일중 관계 전체의 상황, WTO 신라운드와 ASEAN, 한국과의 FTA협상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방침을 정해야 할 것임

## 《대만》

- WTO협정상 독립관세지역이므로 FTA 체결 가능성은 이론적, 법 기술적으로 검토 대상임
  - ※ 대만의 관세율(단순 평균)은 전품목 6.1%, 비농산품 4.8%로 FTA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쌍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음
- 오히려, 민간경제계의 요망을 수용한 폭 넓은 경제관계를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경제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멕시코》

- 인구는 약 1억명이며, GDP는 ASEAN 10개국에 필적하는 대국이자 미주시장에의 관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멕시코는 FTA에 의한 선택적인 특혜관계 구축을 대외무역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교섭 개시가 필요함

## □ 중국의 동아시아 FTA주도에 대한 일본측 시각

- 중국은 WTO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체제의 정비를 위한 경제개혁에 전념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며, 국제무역 제도 이행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중국제품이 일본시장에 유입되면 일본경제가 버티기 어려움

## □ 일본기업의 반응: FTA 찬성입장 지배적

- 닛케이 리서치 조사(01.9-10, 무역업체 및 상장기업 매출 상위 957개사)
  -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물의 정비, 기준, 인증의 통일 등을 통한 수출 및 투자확대를 기대
  - 일본이 교섭 또는 검토하는 FTA중에서 체결을 희망국(복수응답 허용)중에 한국이 가장 앞섬
- 한국 41.4%, 싱가포르 35.3%, 멕시코 13.1%, 캐나다 9.9%, 칠레 3.7%순
  - ※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영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40%이상이었지만, 영향이 있다고 회답한 것 중에서 플러스 영향이 37%로 마이너스 영향 8%를 크게 넘고 있음(업종별로는 운송, 통신의 60%이상이 플러스 영향 회답)

## IV.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

### 1. 미국의 FTA

- 미국의 활발한 FTA추진은 대미수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
  - 멕시코의 경우 NAFTA 체결 이후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1999년부터는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2대 교역국의 위치를 확보
    - ※ 미국의 NAFTA 회원국과의 교역은 EU-일본의 대미 교역총액을 상회
  - 또한, NAFTA 등의 예로 미루어, 미국과의 FTA 체결국은 투자 유치면에서도 상당한 경쟁우위를 가지게 될 것임
  - 미통상정책의 최우선과제의 하나인 FTAA(미주자유무역지대)가 발효되면 주요 무역흑자원인 대미주수출에 상당한 타격우려
    - FTAA는 미주 34개국 참여, 8억 인구, 11조불 GDP, 3조 4,000억불 무역액으로 발효시 미국 수출은 2.5%증가 전망

#### FTAA협상작업반과 협상과제

작업반	협상과제
시장접근	관세, 비관세장벽 삭감·철폐
정부조달	정부조달시장에의 접근확대
농업	보조금 철폐, 관세 또는 무역왜곡관행 개선
투자	투자촉진위한 공평하고 투명성이 높은 법적제도 구축
분쟁해결	공평하고 투명성이 높고 효과적인 분쟁해결기구 구축
지적재산권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책 구축
서비스	서비스무역의 단계적 자유화
보조금,반덤핑,상계관세	WTO룰과 부합성을 강화, 적용방법 개선
경쟁정책	반경쟁적인 상관행 철폐

- 미국이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브라질등 수출산업구조가 한국과 유사한 국가들과 FTA를 추진시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이 미국과의 교역관계 정상화협정을 맺은 후, 많은 한국내 제조업체들이 베트남으로의 투자진출을 선호
  - 2002년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미국은 NAFTA 규정을 들어 멕시코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FTAA가 체결시 철강경쟁국인 브라질이 이와 비슷한 경쟁우위를 누리게 될 것으로 우려
    - 세계 철강제품의 무역정책은 대규모 철강제품의 소비시장을 무기로 미국과 EU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한국과의 FTA추진은 의회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만 진행됐을 뿐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어 뉴질랜드 호주보다 더 장기간을 요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임
  - 미국 무역위원회(USITC) 연구(2001.10월)
    - 한미간의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21% 수출 증가(약 100억불)를,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54%의 수출 증가(약 190억불) 전망
      - ※ 2001년 현재 한미 양국 교역규모: 571억불
  - 미 상무부는 한미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BIT) 논의가 지지부진함을 들어 BIT 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
    - 한미간 BIT논의가 난항에 봉착한 핵심적인 이유는 스크린 쿼타, 지적 재산권, 자동차 시장개방 등임

## 2. EU의 FTA

- 동구 10개국을 EU에 가입하는 EU확대가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산업구조가 우리와 경쟁 가능성이 있으며, EU 시장과 지리적으로 인접, 근린지로서의 이점도 향유
- 긍정적 요인
  - 제품규격 통일로 규격인증 비용 절감
  - 중동구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EU 시장 우회접근이 더욱 용이
- 부정적 요인
  - 중동구의 반덤핑 규제와 원산지 규정 강화 등으로 한국산 전자제품 및 철강제품 타격 가능성
  - 중동구 투자인센티브 축소 및 유럽기업의 중동구 진출심화로 경쟁 치열
- EU-중남미
  - 유럽업계는 아직 자동차, 전기기계, 식품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기타업종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더 큰 관심
  - EU 시장에서는 중남미의 대EU 수출규모가 크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적을 것이나 향후 경합이 예상됨
    - 전기제품, 기계, 자동차, 플라스틱, 철강, 광학·정밀기기, 유기화학 등
    - 특히 자동차, 전기기기 부품분야에서 심한 경쟁 예상
      - ※ 자동차부품 : 한국은 완만한 성장세, 멕시코등 중남미산은 현저한 증가세
      - ※ 전기제품 : 전동기, 반도체, 무선전화기, 변압기, 축전기등 수출증가세
  - 중남미 시장에서는 기계류와 전기기기가 주요 경합
    - 기계류 : 냉·난방기, 기계부품, 성형기와 주형기, 밸브류
    - 전기기기: 변압기, 무선기기 및 부분품, 전자직접회로 및 전선 등
      - ※ 자동차는 EU는 이미 포르크스바겐, BMW 및 벤츠 등이 현지 조립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멕시코에서는 시장점유율 내외를 차지

### 3. 중국-아세안 FTA

- 역내수출의존도가 7.2%(2000년 기준)에 불과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대중 수출품목간의 경합도가 낮아 대중 수출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한국의 대중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화학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철강제품 등 산업용 원·부자재가 5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아세안의 대중 수출제품은 주로 원료성 원·부자재에 집중
  - 양 지역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한국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중국시장 보다는 아세안시장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대아세안 수출경쟁력이 강한 품목이 많고 전기기기, 기계류 등에서 산업내 분업관계가 형성되어가고 있음
  -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관계는 전기기기와 기계류에서 산업내 분업관계에 있으며 목재, 펄프등 자원가공형 제품은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약해 대중국 무역흑자의 원인이 됨
    - ※ 전기기기가 산업내 분업관계에 있는 것은 아세안과 중국에 생산거점을 둔 일본이나 구미계 다국적 기업이 기업내 역내분업 때문임
  - 태국은 전기기기와 기계류, 장섬유, 철강 등도 산업내 분업관계에 있으며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한 품목은 의류, 모피 등 노동집약적 제품임.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약한 품목은 자원가공형 소재류와 플라스틱과 동제품임
  - 인도네시아도 기계류, 전기기기, 섬유 및 철강, 유리등 소재류가 산업내 분업관계임.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한 품목은 완구, 가구, 의류 등 노동집약적인 품목이 많으며 목재나 종이제품 등 자원가공형은 중국수출경쟁력이 약함
  - 싱가포르와 필리핀과의 관계는 노동집약형 제품이나 소재, 중간재등 중국수출경쟁력이 강한 품목이 많고 무역수지는 중국이 흑사이거나 소폭 적자임

- 자유무역협정에 서비스 및 투자까지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상품교역보다 투자로 인한 영향이 더욱 클 가능성
  - 동아시아 역내무역이 80년대말까지는 일본을 중심으로 hub and spoke형식으로 수직적으로 통합되었으나, 90년대초반 부터는 역내 무역에서 아세안비중이 일본비중을 능가함으로써 무역 중심축이 아세안으로 전환
  - 90년 후반부터는 중국이 새로운 무역 중심축으로 등장함으로써 역내국간 산업내 분업이 확대되고 있음
    - ※ 일본의 대아시아투자중심지 이동(80-2000년대): NIEs→ 아세안→ 중국
  - 현재 진행초기단계인 대아시아 FDI의 중국독식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하며 아시아국가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음
-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에 따른 중국 시장내에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대중 투자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내수시장확대에 따라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형 입지에서 시장형 입지로 전환중
    - ※ 중국의 대아세안 관세감면에 따라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은 중국내 조달이 어려운 원부자재를 아세안국가로 전환이 예상됨
  - 아세안과 중국내수시장 동시공략 전략도 구사전망
    - ※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액(실행기준 누계)
      - 대중 투자금액(실행기준 누계)은 '92.12월 271건, 2억 6백만불  
→ '02. 6월말 현재 6,634건, 58억 3천만 달러로 각각 25배와 28배 증가
      - 중국통계기준 약120억불로 미, 일, 싱가포르에 이어 4위임

## 중국과 아시아 주요국간 무역추이

(단위:백만불)

	96년		2001년	
	무역액	수지	무역액	수지
한 국	20,032	△4,970	35,910	△10,868
대 만	18,985	△13,379	32,339	△22,339
싱 가 포르	7,350	148	10,935	649
인도네시아	3,708	△852	6,725	△1,051
말레이시아	3,614	△872	9,425	△2,985
필 리 핀	1,387	642	3,565	△325
태 국	3,115	△635	7,050	△2,326

자료: 중국 해관통계

## 중국과 아세안등 주요국간 산업내분업도

	중국의 비교열위품목	중국의 비교우위품목	산업내 분업관계
한국	메리야스편물, 섬유·직물, 플라스틱 및 제품, 비누 및 계면활성제 등 화학품, 철강, 기계류·전기기기, 종이·판지, 철강	의류·부속품, 피혁제품, 가구, 침구, 완구, 목재·펄프, 도자기 제품, 사진용·영화용재료	신발, 약기, 면직물, 선박
대만	플라스틱 및 제품, 유리, 철강 등 소재, 메리야스편물, 면직물, 섬유직물, 인조모피, 기계류, 전기기기, 비누 및 계면활성제 등 화학품	의류·부속품, 피혁제품, 가구, 침구, 완구,	완구, 놀이용품, 약기, 목재·펄프, 도자기 제품
태국	목재·펄프, 종이·판지,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유리·제품, 비누 및 계면활성제	의류·의류부속품, 혁제품, 신변장신구, 모피·인조모피, 신발, 양식기완구, 여행용품, 가구, 침구, 선박 및 구조물, 약기, 철강제품, 염색원료, 사진용 또는 영화용재료	기계류·전기기기, 면·면직물, 장(단)섬유·직물, 차량
인도네시아	목재·펄프, 종이·판지,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메리야스편물, 의류·의류부속품, 혁제품, 신변장신구, 모피·인조모피, 신발, 양식기, 완구, 여행용품, 가구, 침구, 차량, 선박 및 구조물, 도자기제품, 철강제품, 염색원료, 사진용 또는 영화용재료	기계류·전기기기, 방직용섬유·직물, 장(단)섬유·직물

## 4. 일본의 FTA

- 아시아국가와의 FTA는 농산물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한 일·싱가포르 FTA 기본틀(농산물 제외)을 바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 일 - 멕시코
  - 일본산 원자재, 부품조달이 용이해져 멕시코로 투자, 생산거점 이전이 증가하고, 일본으로의 역수출 확대로 한국기업의 입지를 좁힐 우려
  - 한국의 대맥 주력 수출품 가격 경쟁력 급감(멕시코의 평균관세는 16%로 고율임)
    - 한국의 대맥 주력 수출품인 전기전자 제품 및 그 부속품, 철강, 타이어, 기계류 등이 일본산과 경합 중임.
    - 특히, 전기전자 및 가전은 급격한 가격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며, 철강도 일본산과 경쟁품은 시장진출이 어려워 질 전망
      - ※ 현지 투자 진출한 가전 업계 경우도 PROSEC제도에 의거한 관세혜택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으나, 일본 가전진출 업체들이 전부품을 무관세로 들어 올 경우, 가격 경쟁력 때문에 한국산 부품수입에 차질 예상
  - 자동차 및 부품 시장진출기회 크게 제약
    - 2002.11월 현재 한국산 승용차의 대멕시코 수출길은 멕시코의 '자동차 규정'의거 막혀 있음
      - ※ 멕시코는 자국내 투자 진출 기업에 한해 자동차 수입을 허용 중이며 2004.1.1부로 개정될 예정임
    - 자동차수입관세율이 13% 고율 이기 때문에 북미, EU에 이어 일본산까지 무세로 들어오면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경쟁력은 거의 상실
      - ※ 멕-EU FTA의거 프랑스 및 독일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향상 되면서 EU산 자동차의 대맥 수출이 급증추세임

- 일본등 경쟁국 기업들의 멕시코 및 중남미 시장 선점 우려
  - FTA 미체결한 한국기업으로서는 투자진출시 일본 기업 대비 불리한 조건(원부자재 관세 부담) 때문에 투자 의욕 저하 우려

#### ○ 일-ASEAN

- 아세안산 농산물 수입급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FTA 체결은 어려우며 부분적, 단계적 시장개방이 예상됨
- 아세안 측에서는 동아시아와 통합을 희망하고 있고 중국도 아세안 FTA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국-ASEAN FTA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통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으로의 생산거점 이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V. 韓國의 對應 戰略

### 1. FTA의 신속, 동시다발적 체결 추진

#### □ FTA는 세계적 메카트랜드이나 한국은 뒤져 있음

- 스피드한 시대에 대응한 신속한 정책 수립, 추진 필요
- 생산의 무국경화로 최적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 전략화
  - FTA 미 체결에 따른 관세나 비관세장벽, 정부규제 면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는 어려움
  - ※ 특히, 최근의 FTA는 무역분야에 그치지 않고 투자, 정부조달, 규격인증, 환경, 분쟁해결, 경쟁정책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므로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광범위함
- FTA에 소극적인 동아시아국가들도 전세계적인 FTA 체결경쟁에 2001년부터 참여시작

####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진행상황(2002.11월기준)

구 상	현 재 상 태
한 -일	- 2002.1월 FTA비즈니스포럼 발족 - 양국 정부차원의 공식의제로 격상
한-태국	-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
한-싱가포르	- 양국 자유무역협정 추진가능성 상호검토 희망
일-싱가포르	- 2002년 체결 ※ 자유무역협정을 뛰어넘어 경제 파트너쉽 지향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 2002년 아세안 선발6개국대상으로 우선 실시
중국-아세안	- 향후 10년내 자유무역지대 창설합의, 중국측 전향적 양보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 동아시아 비전그룹 제안으로 한국 김대중 대통령이 공식 제안(2001.11월 ASEAN+3)

□ 순차적 체결보다 우선 순위군 국가들과 동시 협상 추진

○ 주요 고려요인

- 수출확대와 국내의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시장창출측면
- 양질의 투자유치 유발
- 외교 안보적인 측면

○ 우선 추진대상국(예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등과 가급적 동시 추진

- 미국처럼 태국 등 아세안 관심국 일부국가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 우선 추진 대상국 선정사유

구 분	사 유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협상대상국 모두 중국의 막대한 FDI 흡인력, 세계제조공장화에 따른 산업공동화, 중국상품의 수출·자국시장잠식에 우려</li> <li>● 특히, 싱가포르와 일본은 중국이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지역 본부화 및 R&amp;D거점화로 변모하고 있어 극히 우려 입장</li> </ul>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11위 수입국이자(중남미 최대 수입국) 중남미국가중 FTA최다체결국가이며(체결국가 32개국)북미제조기지중 하나</li> <li>- 일본-멕시코간 FTA협상이 조기타결될 경우 우리의 대멕시코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전망</li> <li>* 주력수출품인 전기전자제품·부품, 철강, 기계류, 타이어 등이 일본제품과 경합중이며 멕시코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높은 편</li> </ul>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FTA에 관심이 높고, 멕시코와는 NAFTA 진출거점 및 FTAA 결성 대비 사전 거점 마련을 위해 FTA를 추진중</li> <li>● 단기적으로는 대일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효과로 한국의 경쟁력이 제고</li> <li>- 일본의 대중국 견제정책, 일본기업들의 하이테크중심의 투자증대로 한국의 국제R&amp;D센타화 및 고부가생산기지화에 기여</li> </ul>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전량수입국가로 한국의 1차 산업이나 중소기업과 경합되는 산업이 많지 않아 FTA 추진에 가장 부담이 적음</li> <li>- 싱가포르의 FTA네트워크활용과 대아세안 FTA체결 모델 작용</li> </ul>

## □ 중국과도 FTA체결이 필수과제중의 하나

- 한-중-일 동북아 3국간 산업별 협력관계 긴밀화를 통한 상호신뢰 기반구축과 공동이익확보가 필요함
- 동아시아 경제중심축으로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퇴조현상이 대세임을 감안시 중국과 상호보완관계 강화를 통한 대중수출 확대가 중요함
- 다만, 일본이 중국과 FTA 조기체결에 반대입장이며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함을 감안시 한국의 중간자역할을 통한 동북아 3국 FTA추진
- \* 중국산 1차 상품 및 저가공산품(중국내 다국적기업 및 전자등 일부 중국기업제품의 품질 및 A/S능력 크게 향상추세)의 시장침투확대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 우선 순위군과 동시협상추진을 위한 협상 전문인력 보강확충

- 범 부처 대책반 가동 및 KOTRA, KIEP, KIET, 민간연구소등의 통상 전문인력을 대책반원에 포함, 현장감 및 분석능력제고
- FTA협상 수요의 확대와 장기화를 감안, 종합적인 통상전문 인력 공급시스템 구축
- 전문인력양성계획 수립, 전문인력 DB구축 및 활용
- 전문가 인력풀 구성, 활동 인센티브 제공, 민간과 정부부문의 전문 인력 인적교류 시스템 활성화

## 2. 아시아 FTA Hub국가로 포지셔닝

- FTA의 무역창출효과 극대화외 외교안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FTA 허브로 포지셔닝 필요(싱가포르, 칠레, 멕시코전략 모델링)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횡단적인 FTA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들과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 허브로 포지셔닝을 위해서는 무역 및 기업 활동을 원활화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 개선노력 병행 필요

□ 한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지에 있으며 미·중·일·러 세계 4대 강국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중심지

- 동북아 3국(한국, 일본, 중국)은 세계경제의 1/5, 동아시아 경제의 90%를 차지
  - 대외적 공생의 대외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국가과제를 구축
  - TKR(한반도종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의 조속한 연계와 원활한 국경통과를 통한 물류거점화 추진

□ 동북아지역에서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체결에는 제약이 많은 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철강, 조선 등 주요 산업별 공동체를 시발로 단계적 경제통합 추진

- EU도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기구가 모태가 되어 1993년 단일 시장으로 출범
- 동북아 철강공동체가 결성될 경우 이점(예시)
  - 무역장벽완화로 역내무역증가, 시장의 단일화에 의한 시장확대 및 규모의 경제실현, 경쟁촉진에 의한 효율성 제고로 제 3국 전체 철강산업에 대한 비교우위창출, 대외협상력제고, 동북아 생산과잉 문제 해소

### 3.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및 산업 전략 추진

#### □ 연구개발과 비즈니스를 병행하는 R& D 중심지로 조성

- 풍부한 우수 연구·기술인력풀 양성, 법적 규제나 행정지원 절차에서 중국 등 아시아 경쟁국대비 우위 확보
  - 선진기업의 중국내 R&D 센터설치 사유
    - 인건비가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우수기술 인력이 풍부, 거대 중국 시장에 적합한 제품과 기술개발, 중국의 강력한 제조능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기술을 접목·융합 가능
    - 오라클, 노키아, 델컴퓨터, 모토롤라 등
- 양적규모 증시의 외국인투자유치에서 세계적인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정비 등

#### □ 중국의 부상에 따른 상호보완전략 기반확보

-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세계수준의 생산기반 및 기술수준을 토대로 대중국 핵심 원·부자재 및 부품공급기지 역할 담당
    -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세계최대 석유화학제품 수입국인 중국과 해로로 400Km 거리, 고부가가치 신소재 생산거점 추진
    - 대중국 투자가 많은 전기 기기 및 기계류의 경우 관련 소재나 중간재의 중국경쟁력이 취약하여 공급능력확충이 필요
    - 일본 IT관련 부품총수출중 대중국 수출비중(%)
      - 3.4(96년) → 5.1(98년) → 6.8(00년) → 9.1(01년)
- ※ 전자관, 반도체, 집적회로, 정류기, 콘덴서, 저항기, 인쇄회로기판, 컴퓨터 부품 등

- 한-중 교역구조는 경합관계보다 보완관계가 강화추세임
  - 양국간 무역보완도 지수 : 0.58('90년)→ 0.86('98년)→ 0.94('00년)
- ※ 무역보완도 지수는 한국의 수출구조와 중국의 수입구조의 일치정도를 보여 주는 척도로서 1에 가까울수록 구조가 일치, 0은 완전히 다름을 의미

#### □ 산업구조의 글로벌 분업체제로의 신속 전환

- 글로벌 아웃소싱 대상이며 시장선점효과가 큰 차세대 핵심부품 소재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산업 집중 육성
- 한국은 전자·전기부품 기술수준이 일본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도달, 반면 자동차부품은 일본에 크게 열위(일본경제산업성 조사)
  - 전자·전기부품은 브라운관·반도체·PC메모리·마더보드·에어컨용 컴프레셔 등은 일본과 대등한 품질 및 기술수준에 도달, 향후 3년후 일본 추월도 예상
  - 자동차부품은 일본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차체 금형기술에서 대만·중국·태국보다도 열위

#### □ 세계 분업구조내 가치연쇄에서 한국산업 및 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지로 육성

- 대부분은 우리산업은 부가가치가 낮은 가치연쇄(기초연구-제품개발-생산공정-마케팅 등)에 위치해 있고 특히 생산공정에 집중
  - 선진산업은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기초연구, 마케팅 등 핵심 가치연쇄에 위치
- ※ 반도체, 철강, 조선은 선진국과 비슷한 가치연쇄에 위치. 자동차, 통신 등은 생산공정상의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제품개발 면에서도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
- 급부상하는 세계전자제품위탁제조서비스(EMS)시장의 핵심 Supply Chain으로 편입

- 세계제조업 생산중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비중 지속 상승, 2010년에 전세계 전자제품생산의 60~80% 점유전망
- 세계EMS시장 : 2002년 1,390억불→2010년 6,000억불(연간20%내외성장)
- 세계주요 EMS 기업을 투자 유치하거나 부품 공급처가 될 경우 클러스터링 효과(아웃소싱을 통한 현지 공급업체와 연계, 생산 및 수출활동 중점수행으로 관련 소산업단지 형성), 자체생산 및 수출로 국내경제 성장에 기여
- 세계 주요 EMS기업들의 생산공장 대부분은 브라질, 중국, 헝가리, 멕시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일본 소재

□ 세계적으로 산업의 발전이 특정지역에 집중하여 집적의 경제를 도모하는 클러스터화 경향에 대한 적극 대응필요

- 다국적 기업은 집적의 경제를 위해 특정산업의 집적지(클러스터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며 하이테크 산업일수록 집적의 경제를 추구
  - 기존사업체의 집적, 인프라의 완비, 부품업체의 집적, 기술능력의 집중 등이 가져오는 외부경제효과 활용가능(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주강 델타지역 등)
  - 반도체의 경우 다국적기업들은 31개국에 투자진출해 있으나 상위 3국가에 절반이 집중
  - ※ Intel은 비용구조상 고부가가치분야인 웨이퍼 생산·가공은 미국, 아일랜드,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노동집약적인 조립 및 테스트는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수행
- 국내 산업단지나 공단이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시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
  - 대학-연구소-대기업-벤처기업으로 구성된 생태계 조성이 시급
  - 영국, 핀란드의 경우처럼 Cluster Map을 작성, 중장기적으로 산업 클러스터 육성전략 수립

□ 외국 투자업체들이 수출 및 고급기술위주로 영업활동을 하도록 타겟 전략을 시행하고 제조업 지원서비스의 기반 확충

- 전략적인 투자유치, 풍부한 기술인력 양성 및 적시 제공, 국내관련 산업 기반구축 및 부품산업 양성, 기술력제고가 필요
- 제조산업 공동화 압력, 지식기반경제하의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서비스역량 확충
  - e-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벼움과 스피드 추구, 경영자원의 소프트화, 복합·네트워크화 등이 필요
  - 생산지원서비스: IT기술, 물류, 디자인, 엔지니어링, 정보·재고관리
  - 기업지원서비스: 금융, 회계, 법무, 경영컨설팅, 광고, 인력아웃소싱

싱가포르의 FDI정책 및 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사례

□ 정책

- 국가개발 및 산업정책에 기여하는 FDI타겟팅을 위한 감독기관 설립
- 현지진출 다국적기업을 수출중심으로 유도키 위한 타겟 인센티브제도 시행
- 현지진출 다국적기업의 지원과 외국정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인적자원 시스템을 개발·업그레이드하여 산업현장에 즉시 사용가능한 인재를 공급
- 외국기업들의 연구센터유치위한 과학단지를 포함한 세계수준의 인프라 구축
- 자본투자펀드를 설립, 전략투자분야에서 외국기업들과 제휴
- 국내기업 개발, 부품공급업체 및 클러스터 육성에 중점을 정책수행

□ 전자 클러스터 육성 사례

-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가 클러스터육성에 중추역할을 담당
  - 전자클러스터를 가전에서 산업용 전자를 거쳐 반도체로 육성에 성공
  - 3개의 웨이퍼 가공 산업단지 설립을 위해 단지별 전기·수도·쓰레기 처리 시설, 부지 및 기타 부대서비스를 제공
  - Cluster Development Fund를 조성하여 Texas Instruments, Hitachi/Nippon Steel, Philips등과 함께 웨이퍼가공에 지분 참여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B)는 무선통신센터, 마그네틱기술센터, 마이크로전자 연구소등 설립과 같은 R&D 활동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
- 숙련기술개발펀드조성, 직업 및 산업훈련원 등을 설립, 기술기반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 산업체에 제공

#### 4. FTA로 확대되는 거점시장으로의 현지투자진출 강화

##### □ 중국의 부상과 일본퇴조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산업질서 재편과 중국 기업의 동남아 진출움직임에 적극 사전대응

-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새로운 경쟁자로서의 중국의 부상과 10여년간의 경제불황 지속으로 인한 일본영향력의 퇴조는 동아시아 질서개편의 한 단면임
  - FTA로 중국의 잠재력에 동남아의 화교자본이 결합하고, 중국 국유기업들의 동남아 진출이 본격화되면 중국의 영향력은 확대될 전망
  - 아세안은 중국과의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고 현재의 대미국 및 일본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
- FTA로 동아시아내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재배치가 이루어질 전망
  - 제품의 수송비, 각국시장의 문화적 특성요소를 고려하되 생산이나 기술개발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생산시설 정비
  - \* 일본기업들은 향후 3년간 제 1투자대상지로 중국을 가장 선호하나 리스크분산을 위해 동남아 사업은 지속한다는 자세임(JETRO조사)
- 중국과 동아시아에 생산기지를 설치한 대기업들은 중국기업과의 경쟁본격화에 대비, 생산효율화를 위한 네트워크 정비등 필요
  - 중국은 국제화의 실험장으로 동남아를 선택, 2000년대 들어 동남아에 대한 직접투자가 급증
  - \* 동남아는 한국, 대만등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고 아세안자유무역지대로 통합되어가기 때문에 동남아를 선호
  - \* 중국기업중에서 생산설비 과잉상태에 있는 국유기업이나 국내경쟁이 치열한 전자업체를 중심으로 대동남아 현지생산진출
  - 중국의 공업이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풀 세트형 공업화를 지향하면서 일본이나 한국을 위협, 중국과 동남아간 비교우위에 따른 수평분업도 등장할 전망
  - \* 중국기업들은 가전, 이륜차 등에서 외국계 기업을 압도해가고 있는 반면 아세안기업들은 그 반대임

- 중국 국유기업들은 기업집단화를 통해 시너지, 효율,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어 중국 국유기업들과 대동남아 진출협력방안 강구 통한 공동성장의 길 모색

### FTA가 독일 Volkswagen자동차생산 재배치에 미친 사례(멕시코)

- 1989년 미국-멕시코로 양분된 북미생산(동일모델을 양국에서 생산, 가동률이 공히 50%미만에 불과)을 멕시코 공장으로 통합하고 공장현대화 및 품질향상 노력 배가
- 1994년 NAFTA가 발효되자 멕시코공장에 대한 투자확대와 기술업그레이드를 결정
  - \* 수억불의 신규투자와 20여개 이상의 주요 자동차부품업체들이 동반투자함
- Volkswagen 월드차인 New Beetle 모델을 1995년부터 멕시코에서 생산 개시
  - 2001년 380,000대를 생산, 이중 300,000대를 수출(이중 80%는 북미시장향)하여 Volkswagen 북미판매의 60%를 담당
- 세계최대자동차시장인 미국시장의 주요 공급원으로 발전, 엔진 및 기타 자동차 부품도 생산하여 타지역공장에 공급하는 세계정상급 생산 플랫폼 홈으로 변신함

### FTA가 일본기업의 동아시아생산 재배치에 미치는 사례

- 2002년 일본-싱가포르 FTA체결로 싱가포르의 일본산 맥주에 대한 수입관세가 2002.11월말부터 무세화로 일본맥주업체들이 생산기지 이전
  - 아사히맥주
    - 중국청도맥주와합작, 중국현지공장에서 99년부터 슈퍼드라이맥주를 생산하여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수출
    - 싱가포르의 일본산 맥주수입관세 무세화로 코스트가 역전되어 싱가포르로 향하는 맥주는 일본산으로 대체함
    - ※ 관세분인 0.28싱가포르 달러(약 200원/350ml캔)를 부담치 않아 일본에서 수출하는 것이 원가에서 유리하기 때문임
    - ※ 수입관세 0.28싱가포르 달러는 맥주생산원가1.5 싱가포르 달러(추정)의 18.7%를 점하는 액수임
  - 삿포로 맥주: 관세부담경감분을 판촉비로 돌려 점유율 확대를 노림

## 5. 경제구조 고도화 및 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적극 활용

### □ FTA를 총체적인 경쟁력 강화수단으로 활용

- 칠레는 FTA를 구조조정수단으로 활용하여 국내산업경쟁력 강화, 국가 신인도 제고에 성공하여 양질의 외국인투자가 유입
- 멕시코는 NAFTA로 외국인투자가 급증하고 대북미수출이 증가하여 멕시코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향상에 크게 기여
  - \*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NAFTA체결직전 6년간 연평균은 37억불에 불과, 발효년도인 94년 약 3배 증가한 110억불, 7년후인 2001년에는 94년대비 배가 증가한 247억불 기록

### □ 취약 산업분야에 대한 사전대책과 원활한 구조조정정책 추진

- FTA무역자유화는 산업민감도에 따라 5-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통상 협정체결후 10년이 지나면 무역이 거의 자유화됨
  - FTA로 특히 중소기업, 부품업체, 1차산업들의 시장잠식예상
    - ※ 코스트절감, 생산거점 이전, 시설통합, 고부가가치화 추진
    - ※ 농산물분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자본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완화 및 구조조정지원이 필요

### □ 외투기업등 기업활동 원활화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

- 선진국의 노동정책을 벤치마킹하되 국내현실에 적합한 정책개발 필요
  - 국가경쟁력제고를 바탕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고용확대간 균형과 조화 추구

## 유럽과 미국의 노동시장 관리방법

	국가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근로자 자질 향상
앵글로색슨형	미국	- 리스트럭처링 및 아웃소싱 통한 인건비의 변동비화	- 교육개선 ·대학교, 대학원, 전문대학 기타 고등교육기관 대상 - 직업훈련제도 개선 · 직업훈련의 재설계 및 통합, 직업능력 배양 프로그램 등
	영국	- 노동시간 규제를 통한 유연성 증대 (변형노동시간제) - 여성보호규제 철폐 · 노동시간 차별철폐, 남녀 고용차별 및 여성과보호 금지	- New Deal 정책 · 청년 및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급, 풀타임교육훈련, 자원봉사단체 취로 및 훈련, 공적 환경보호사업 취로 및 훈련 등
대륙구주형	EU	-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전환 (실업수당, 퇴직장려금, 노동력의 유연성 제고, 직무능력향상)	
		- 암스테르담 조약 · EC조약제 125조 : 가맹국은 통합고용조정전략 개발, 경제여건변화에 상응한 숙련된 노동력 증대와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상호 노력	
	독일	- 유럽 고용전략 · 고용적합성 향상(Employability), 창업지원(Entrepreneurship),(변화에 대한) 적응능력(Adaptability), 고용기회의 균등화 (Equal Opportunity)	- 직업훈련 향상 · 청년실업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자료: 일본 경제통상산업성, 통상백서 2002

## # 부록 1: 세계 주요국별 · 지역별 최근 FTA 협상동향

		내 용
미주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추진을 경제, 안보, 외교관점에서 종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범세계적인 지역주의확산에 대응한 세계무역협상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FTA추진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음</li> <li>- 안보 및 테러확산방지 목적: 이스라엘(85년), 요르단 (2001년)</li> <li>- 경제, 외교 및 협상에서 전략적 우위 목적: 싱가포르(2002년 핵심분야타결), 칠레, EFTA, ASEAN 등</li> <li>- 상품교역뿐만아니라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등을 포함한 가능한 포괄적으로 추진</li> <li>- 미국대기업들도 기대수준이 낮은 WTO보다는 FTA를 통한 단기간에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협정을지지</li> <li>○ 협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12월 칠레와 협상완료</li> <li>- 2002.11월 싱가포르와 핵심부문에 대한 합의완료</li> <li>* 싱가포르와 인접한 인도네시아 빈탐섬, 바탐섬에도 FTA원산지를 적용, 양섬에서 생산되어 싱가포르 경유한 대미수출전자제품에 대한 무관세인정</li> <li>-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li> <li>* 미주 34개국(인구 8억) 포함, 2005년 1월 협상종결, 동년 12월 발효 목표</li> <li>* 미국은 무역뿐만아니라 정치적 실체적 장벽을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국의 패권확대를 우려한 브라질간에 정치적 대립이 걸림돌임</li> </ul> </li> <li>○ 논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미 5개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li> <li>- 이집트, 모로코 사하라이남아프리카 5개국(남아공,보츠와나,레소토,남미니아, 스와질랜드)</li> <li>- 호주, 인니, 필리핀</li> </ul> </li> <li>○ 연구중: 한국, 대만, 뉴질랜드, ASEAN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는 FTA보다는 1차적으로 양국간 투자협정체결(BIT)이 우선적이라는 입장임. BIT난항은 스크린쿼타, 지적재산권, 자동차시장개방에서 양국간 이견</li> <li>* 2002.4월 ASEAN과는의 FTA체결 가능성을 검토기로 합의, 11월에는 FTA 체결전 단계로 무역투자기본협정(TIFA:the Trade and Invest-ent Framework Agreement)체결을 추진기로 합의</li> </ul> </li> </ul>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A외에도 EFTA, 싱가포르, 중미4개국(엘살바도르,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카리브 13개국 · 지역과 협상중</li> <li>- EFTA와는 캐나다조선업계가 반대를 표명하여 교섭이 정체상태임</li> </ul>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나마, 싱가포르와 협상중, 일본과의 정부간 연구는 2002년 7월에 종료</li> <li>- 파나마와는 신정권이행후 교섭이 정지되었지만 재개예정. 싱가포르와는 산업계의 합의가 없어 협상 보류상태</li> <li>○ 멕시코는 WTO평균양허세율 35%, 단순평균관세율16%로 멕시코와 FTA체결이 없는 국가는 대멕시코수출시 불리함</li> </ul>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A협상관련 반덤핑운영규정 명확화, 농산물시장 추가개방등을 미국에 요구 통한 미국주도의 협상을 저지코자 함.</li> <li>- 타국과의 양자간 협상은 없고 MERCOSUR 일원으로 협상중</li> <li>* MERCOSUR는 안데스공동체, EU와 협상중</li> </ul>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 2002.10월 타결</li> <li>○ 미국, EU와 협상은 연내에 완료, 2003년 1월부터 발효를 목표</li> </ul>
아시아·대양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에 의한 다가간 무역자유화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li> <li>- 다자간협상에 의존해왔으나 세계적인 FTA확대에 소외되지 않고, 중국-아세안 FTA추진에 자극받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중임</li> <li>- 싱가포르와는 신시대경제체휴협정(JSEPA)를 02.1에 서명, 일본의 최초 FTA</li> <li>· 관세철폐,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 인력이동, 전자상거래관련제도 조화,무역원활화를 위한 규격인증 상호승인, 지적재산권보호등 광범위한 분야 포함</li> <li>○ 멕시코</li> <li>- 양국정상간 합의로 산관학 공동연구회 설치, FTA가능성을 포함한 경제관계강화방안 검토 완료, 2002.10월 APEC회의에서 양국정상 FTA협상개시 공식발표</li> <li>* NAFTA, EU-멕시코 FTA로 일본기업은 미국, 유럽기업과 경쟁에서 불리</li> <li>○ ASEAN, ASEAN+3</li> <li>-2002.1월 일본총리 방문시 “일-ASEAN포괄적경제체휴구상”을 제안, 전문가그룹등을 통해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중</li> <li>-ASEAN+3의 동아시아스터디그룹에서 동아시아자유무역권 가능성을 검토중</li> <li>○ 한국</li> <li>- 2002.3월 총리방한시, FTA체결 연구를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 설치 합의</li> <li>○ 태국</li> <li>-2002.4월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체휴검토를 위한 작업반설치에 합의</li> <li>○ 기타</li> <li>- 2002.5 호주와 정상회담에서 경제관계강화를 위한 고위레벨의 협의회 설치등에 합의</li> <li>- 2001.10, 대만경제장관이 민간기관베이스로 양국간 FTA연구개시를 제안</li> <li>- 2001.6, 일본무역진흥회와 칠레외무부간 연구보고서는 양국간 FTA조기체결을 제안</li> <li>- 캐나다, 브라질, EFTA등도 관심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는 협상 거의 타결단계, EFTA와 02.6월 체결(2003.1월 발효예정).</li> </ul>

아시아 · 대양주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멕시코, 호주와 협상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와는 01.10월 협상개시 합의, 포괄적인 협상을 실시</li> <li>- 멕시코와는 일시 중단되었지만 01.7월 협상재개 합의. 호주와는 01.2월 협상 재개</li> </ul> </li> <li>○ 검토나 구상단계의 FTA도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칠레·뉴질랜드와 FTA체결 위해 협력키로 2000.9월에 합의</li> <li>- 이밖에 구상이나 타진단계의 상대국은 EU, 인도, 대만, 홍콩, 한국임</li> </ul> </li> </ul>
	태국, ASEAN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은 FTA등 무역환경급변에 따른 정부조직을 전면 개편중이며, 태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표준기술제도를 정비중</li> <li>- ASEAN을 제외한 여타국과는 아직은 기본협정체결단계나 이를 위한 상호연구단계가 대부분임</li> <li>· 호주와는 협상중으로 2001년말에 대폭적인 관세인하에 합의, 01.11월 인도와의 교섭개시에 합의</li> <li>- 태국이 고려하고 있는 FTA체결대상국은 중국, 뉴질랜드, 한국, 크로아티아, 체크, 일본, 미국등 7개국임</li> <li>· 중국과의 FTA체결을 위한 실무작업이 본격화, 협상은 아세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태국이 ASEAN국가중 가장 적극적임</li> <li>* 태국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의 역할을 중국이 일부 대신할 것으로 기대</li> <li>· 일본과는 최근 중국-아세안간 기본협정체결이후로 일본의 태도변화로 진척이 가속화될 전망, 협정타결시한 2012.11(향후 10년이내), 일본은 농산물이 민감분야인 반면 태국은 농산물 및 전자제품의 대일수출증가를 기대</li> <li>· 미국과는 FTA전단계로 무역투자기본협정에 02.10 서명, 투자, 유통, 운송, 지적재산권, 정보통신부문도 FTA포함키로 잠정합의</li> <li>* 역외국과의 FTA협정을 통해 태국경제는 매년 10%이상의 GDP성장을 전망</li> <li>○ 말레이시아는 2국간 FTA협상에 소극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EAN역외국과의 2국간 FTA는 AFTA의 진전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li> </ul> </li> <li>○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무역투자협정을 체결, FTA 추진기반 조성. 필리핀은 02.6월 일본에 FTA체결을 제안</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ASEAN FTA: 체결시한 2010년(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브루나이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11월 정상회담서 향후 10년내 중국=ASEAN FTA설립키로 합의</li> <li>- 02.11월 정상회담서 FTA기본협정을 체결, 03년부터 실무협상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EAN가맹후발국으로 WTO미가입국인 캄보디아, 라오스,베트남등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 중국과 경쟁하지 않은 ASEAN 열대농산물일부(과일) 2003년부터 관세철폐</li> <li>· 2004년부터 1차로 600개 품목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관세철폐하여 2006년까지 마무리: 주로 농산물, 이후 축산물, 수산물로 확대</li> </ul> </li> <li>- FTA 분야: 상품, 서비스, 투자, 메콩강 개발투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 정보통신, 메콩강 개발, 투자분야에 우선적으로 협력 강화</li> </ul> </li> </ul> </li> <li>○ 중국이 대ASEAN FTA에 적극적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미무역의존도 축소, 국내과잉생산기미의 제품수출선을 ASEAN시장에</li> </ul> </li> </ul>

아 시 아 · 대 양 주		<p>기대, ASEAN과의 관계긴밀화라는 안보전략 측면등이 있음</p> <p>* ASEAN사무국 보고서: 동 FTA로 ASEAN의 대중국 수출은 48%(130억불)증가하고, 중국의 대ASEAN수출은 55.1%(106억불) 증가하여 ASEAN/중국 동시에 GDP가 증가한다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EAN 개별국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개방도가 높은 싱가포르, 농산품 수출이 기대되는 태국, 석유수출이 기대되는 브루나이가 적극적인 반면 기타국은 신중함</li> </ul> </li> <li>○ 홍콩, 마카오와 FTA 협상 개시</li> </ul> <p>* 홍콩은 뉴질랜드와 협의 개시, 싱가포르로부터 FTA체결의사를 타진받음</p>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1.1부 WTO가입후 적극적으로 FTA 추진, 과도한 대중국경제의존도 탈피도모</li> <li>*대미수출의존도: 48.8%(1984년)→22.5%(2001년), 중국이 최대수출대상국부상</li> <li>* 대만산 원료와 반성품이 중국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몫이 축소</li> <li>* 미주34개국의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면 대만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li> <li>○ FTA우선추진국으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파나마 뉴질랜드 5개국을 지정, '05년전까지 5개국과 서명목표.(이중 미국, 일본과는 2004년내 서명, 기타국은 2003년말 이전에 서명)</li> <li>- 대만의 재성장 출구 확보, 미국과 FTA를 체결시 중국의 간섭을 이겨내고 일본도 따를 것으로 기대</li> <li>○ 상대국들은 중국과의 관계문제, 경제적 효과등을 감안 대만을 우선대상국으로 포함하지 않은 단계이며, 아직은 타당성 조사단계임</li> </ul>
	서남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아시아자유무역지역(SAFTA)협정 초안을 2002년말까지 작성키로 02.1월 합의, 인도=스리랑카 FTA가 01.12월 발효</li> <li>○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EAN과의 경제제휴를 강화토록 노력, 02.10월에 FTA를 제안</li> <li>- 싱가포르와는 투자협정체결후에 FTA검토 개시를 목표로 함</li> <li>- 인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FTA에 적극적이며, 02.10월에 FTA를 제안(15년 타결시한 제시)</li> </ul> </li> <li>* 선진기술도입, 미국은 제1위 수출시장, 특히 지식상품, e-Commerce, 인터넷 서비스, 통신장비 및 서비스, 특허권보호등에서 시너지효과 기대</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아를 비롯한 환태평양 주요국들과 FTA를 적극 추진중</li> <li>- 2002.11월 싱가포르와 협정체결, 2003.6월 발효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조달, 통신관련 규제,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자유화 포함</li> </ul> </li> <li>- 미국과 FTA 검토단계이며, 특히 하워드총리가 직접 나설 정도로 관심이 높으나 미국상원은 호주농산물 수출확대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음</li> <li>- 태국과도 FTA검토단계이며 일본과는 경제관계강화와 협력가능성을 검토중</li> <li>○ 호주-뉴질랜드간의 경제긴밀화협정(CER)과 AFTA와의 FTA구상</li> <li>- 2000.10월 경제각료회의서 싱가포르 태국이 추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li> </ul>

	<p>반대하여 ASEAN가맹국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진전이 없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때문에 호주와 ASEAN 전체와의 협정검토를 하고 있지만, 양자간 협정을 우선기로 전환</li> </ul>
구 주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와 별도로 FTA를 적극 추진중이며 정치, 외교적인 측면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서비스, 경쟁정책, 인력이동등도 포함하며 체결상대국의 특수성도 고려</li> </ul> </li> <li>○ 멕시코:2000.1.1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주국가와 최초 체결,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등 무역관련 거의 전분야를 포괄, 경제·문화도 포함</li> </ul> </li> <li>○ EU확대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집행위 2002.10월 폴란드, 헝가리, 체코등 10개국 동유럽국가의 2004년 5.1일부로 EU 결정</li> <li>-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2007년 가입목표로 협상 추진</li> </ul> </li> <li>○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칠레(2002년 체결), MERCOSUR, 안데스공동체와 협상중</li> <li>- 아시아국가중 대만, 싱가포르부터 협상제안을 받고 체결가능성을 연구검토 하는 단계임. EU보다는 이들이 FTA에 더 적극적임</li> <li>* 최근 유럽의회가 아시아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채택</li> <li>- CIS국가와는 장차 FTA체결을 목표로 파트너십협력협정을 체결</li> <li>- 모로코, 알제지, 튀지니, 이집트, 터키등 지중해연안국 12개국과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설립 목표. 이중 개별국가와 FTA는 6개국과 기완료 (튀니지, 이스라엘, 모로코, 요르단, 이집트, 알제리), 관세동맹은 터키, 사이프러스와 기체결</li> </ul> </li> <li>○ E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 마케도니아, 멕시코, 2002년 요르단, 크로아티아, 싱가포르와 기체결, 캐나다와 협상중에 있고 MERCOSUR와도 구상중</li> </ul> </li> </ul>
중동·아프리카 구 주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와 협정에 의거, EU가 FTA를 체결했던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팔레스타인자치정부와 협상중임</li> <li>- 요르단, 말타, 남아공화국, 멕시코와도 FTA를 제안중</li> </ul> </li> <li>○ 남아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와 2002년말, MERCOSUR와는 2003년내 체결을 목표로 협상중</li> </ul> </li> </ul>

